‘무주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

황인홍 군수, 6개 읍·면 순회 ‘군정방향·마을현안 공유’ 주민과 소통 추진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한 ‘무주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이하 열린대화)’가 20일 시작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안성면을 시작으로 27일 부남면까지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열린대화에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2023년 무주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군은 올해 희망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무주실현에 매진한다”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버팀목이 되고 전국 10대 관광매력도시로서의 명성과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한 ‘무주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를 20일 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또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이 무주관광의 질을 높이고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추진을 통한 천마 생산, 가공, 판매 여건 개선은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도 아직 진행형이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살기는 더 팍팍해졌지만 함께 한다면 올해는 뭔가 나아지지 않겠나”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며 더 큰 발전을 도모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마을로 이동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숙원 사업을 비롯한 생활 및 농사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진마을 등 5개 마을에서는 저수로 설치 등 30여 건의 민원 사항이 접수됐으며 무주군은 관련 부서 검토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주민들은 “군수랑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무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얘기해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줘서 든든했다”며 “모두의 바람대로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좀 다 잘 돼서 살기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는 21일 무주읍, 22일 설천면, 23일에는 무풍면에서 진행되며 24일에는 적상면, 27일에는 부남면에서 진행된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무주다움의 성숙과 군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태권시티 인프라 구축과 △명품관광도시 도약, △안전한 무주 실현, △따뜻한 돌봄 추진, △농촌인프라 강화, △농업의 전문성 제고, △스마트농업 확대,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행복한 삶터 건설, △귀농·귀촌·친환경 선도 등 10대 핵심전략 추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 9일과 10일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각각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퀴리노주 등 2개 지자체와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일손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

진안군, 필리핀 현지 방문 2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진안군은 20일 올해도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일과 10일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각각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퀴리노주 등 2개 지자체와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일손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진안군은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필리핀 현지에서는 우수 인력을 선발해 사전 적응 훈련을 실시해 농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적기 인력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됐으며 올해 초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 사전 조사와 함께 필리핀 마갈레스 시장, 관계자와 면담을 거치고, E-mail를 통해 세부협약 내용을 사전 조율하는 등 협의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필리핀 현지인들에 대해 이탈방지, 근로기준법, 진안군 농업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을 실시하고, 3월초 현지 면접을 통해 계절근로자 150여명을 선발해 3월 말~5월초까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은 파종기, 수확기에 집중된 인력난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농비용이 증가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특정시기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초래되는 등 농업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155명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한 395명을 배정받게 됐으며 거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을 포함해 총 445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다.

군은 협약식 체결을 통해 도입하는 150여명의 계절근로자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형식으로 계절근로자 200여명에 대해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농촌인력난 해소에 숨통을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탈방지 및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문화적 교류 등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100세 건강도시로 거듭난다

무주읍 도시재생사업 성과 기대

‘생애, ing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를 비전으로 추진 중인 무주읍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무주읍 도시재생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국·도비 167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91억 원이 투입돼 창업지원과정 등이 운영 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창업지원과정은 무주읍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창업 인큐베이팅’과 ‘창업 이음 컨설팅’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 주민들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 △지역자원을 이해·개발하게 되며 소셜 미션 수립을 비롯한 △고객 분석과 시장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 아이템도 발굴한다.

또 △각종 지원제도를 공유하며 △수익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등의 체계적인 교육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 조영자 팀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군은 참여 주민들에게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생애, ing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를 실현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사업 단계별 전문 컨설팅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달리는 국민신문고 무주 찾는다

국민들을 상대로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는 2023년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오는 22일 무주군을 찾는다. 2023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회가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주군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상담관 등 20여명이 군민들을 상대로 건의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날 상담은 행정·문화·교육·재정·세무·복지·교통·도로·사회복지·소비자 피해 의료분야 등 18개 분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열려

장수군은 2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3년 장수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 김현철)는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3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신청 홍보를 실시했으며 사업신청 마감 후에는 사업 관련 담당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고 이번 심의회에 상정해 최종 대상자(15사업 10억원)를 확정했다.

센터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올 11월에는 종합평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보급과 스마트한 행복장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확정된 사업을 비롯한 농촌지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장수군이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폐기물의 보관관리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되는 태그(전용 용기에 부착된 스티커)가 부착된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 용기 사용 여부 △폐기물 보관 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관련 법규의 중대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하고, 미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및 2개월 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안내서 제작

진안군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관련 사업과 혜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청년정책 안내서 제작·배부에 나섰다.

이번 안내서 제작은 진안군청 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추진 정책들을 정리해 관내 청년들이 사업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제작한 홍보물을 읍·면사무소, 청년협의체 사무실 등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비치해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내서 주요내용은 △창업 △일자리 △주거 △경제 △교육 △복지 △농업 등 7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전춘성 군수는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살기 좋고 정착하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발굴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